

■ 엔저로 인한 일본의 한국투자 감소

- 엔저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본 경기 대비 국내 경기의 부진 전망이 심화되어 일본의 한국투자도 감소함
- 엔저가 지속되면서 일본 수출과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철강, 자동차, 기계산업 등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남.

■ 전년대비 FDI 감소, 주요국 국내투자 위축

-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FDI)가 전년대비 감소
- 전년대비 외국인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미국의 해외투자 감소 및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한국 투자가 크게 감소

■ 통상임금 등 노동시장 불확실성, 외투 걸림돌

- 외국 진출 한국기업은 급증한 반면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음. 가장 큰 이유는 한국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임.
- 통상임금과 같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동이나 강성노조의 반발 등에 외국기업들은 큰 혼란 느낌.

■ 한국의 서비스산업 FDI 규제 순위 OECD 1위

- 현대경제연구소의 'FDI 규제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산업 규제 지수 0.16으로 OECD 중 1위
- 일본(0.13)과 미국(0.09), 영국(0.05), 독일(0.02)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음
- 1차과 2차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FDI 규제 지수는 0.143으로 OECD 국가 중 6위

■ BJFEZ 거주지구 해제, 보배지구 개발계획 변경

- 사업성 문제로 장기난항을 겪고 있는 BJFEZ 거주지구는 재산권 피해로 인한 지구해제 주민요청에 따라 경자위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고시('13.9.4)
- 보배캠퍼스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서도 심의, 의결('13.8.23) 하여 개발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진해 두동 동아대 캠퍼스 부지에 산학협력 연구시설 들어선다

- BJFEZ 보배지구 동아대 캠퍼스 부지가 창업연구 시설 및 산학협력기구로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
- 동아학숙은 창원시 진해구 두동 78만 5100㎡에 1,797억원을 투입해 △산학협력연구원 △창업보육관 △첨단생산 및 연구관 △물류 및 연구관 등 6개 건물과 공원 및 녹지 조성 계획

■ 미음산단 외투기업 유치 활발, 본격 가동

- 독일 월로펌프 공장 가동('13.1.2)
- 월로펌프는 1872년에 창업된 독일 글로벌 펌프 전문기업으로 세계 선도기업이다. 60여 개국(직원 7,000여 명)에 지사와 생산공장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20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 한국 월로펌프는 1969년부터 펌프사업을 해온 LG그룹이 월로그룹과 손잡고 설립한 월로그룹의 한국 법인으로, 독일 선진기술 및 노하우와 LG그룹의 유동력 및 품질, 전국적인 서비스 네트워크가 결합한 펌프 전문 기업임. 2000년에 830억 원의 매출에서 출발해 2012년 1,725억 원을 달성했으며, 2020년 3,000억 원의 매출과 국내시장 점유율 1위 공고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월로펌프 공장내 제품 생산 모습

○ 독일 보쉬렉스로스 공장 가동(`13.8.2)

-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세계 80여 개국에 생산 설비와 판매망을 가진 독일의 글로벌 기업인 보쉬렉스코리아가 BJFEZ 내 미음지구 44,380㎡ 부지에 공장을 준공. 독일 본사의 100% 출자로 총 1,750만 유로(약 255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으며, 완성된 부품은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등에 공급할 예정. 동아시아 지역 현지에서 산업 유압, 중장비 유압, 공장자동화 그리고 산업기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개발 및 생산을 강화하게 돼 이로 인해 사업이 더욱 확장되고 고용창출의 기회를 늘려 지역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2013년 10월에는 외국기업의 날 행사에서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한 바 있음.



○ 오스트리아 가이스링거 공장 가동(`12.11.29)

- ‘최첨단 대형선박용 축 진동 댐퍼’ 제조기업인 오스트리아의 ‘가이스링거’가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 9천915㎡ 부지에 첨단제조시설을 조성. 1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며, 생산되는 제품들은 두산, STX 등에 공급될 예정임



(주)가이스링거 생산현장

○ LG CNS 데이터센터 개관(`13. 5월)

- LG CNS는 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미음지구에 개관. 연면적 32,321㎡ 규모로 72,000대의 서버를 동시에 운영 가능하며 특히 면진

첨단기술의 적용으로 리히터 규모 8.0 지진의 진동 에너지 흡수로 서버 등 장비 손상 방지도 가능함



LG CNS 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10필지 분양

- 경남개발공사, 남문지구 내 외국인 임대주택용지 1필지를 포함한 공동주택용지 10필지 분양
 - 신항 배후지와 웅동지구의 물류·유통분야 종사자, 외국인을 위한 환경친화적 주거단지가 조성됨
 - 공동주택용지 가구 수는 약 5200가구, 지난 2008년 8월 부지조성 공사 시작, 내년 6월 준공을 목표

■ 명지국제신도시 서부지원·서부지청 유치 확정

- 명지국제신도시에 개발되는 70,664㎡의 범조타운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18,182㎡)(`12.12.21)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18,182㎡)(`13. 1. 22) 유치 확정

■ 화전산단에 태웅 제강공장 착공(`13.12월)

- 세계 최대 규모의 단조제품 제조기업 태웅은 `13년 12월 화전산업단지내 57,187㎡ 부지에 70만톤 규모의 제강공장을 착공
- 총 3,105억원 투입 예정이며 자체 신규 고용 300명, 협력업체 300명 등 전체적으로 약 1천명 고용 창출 효과 발생

